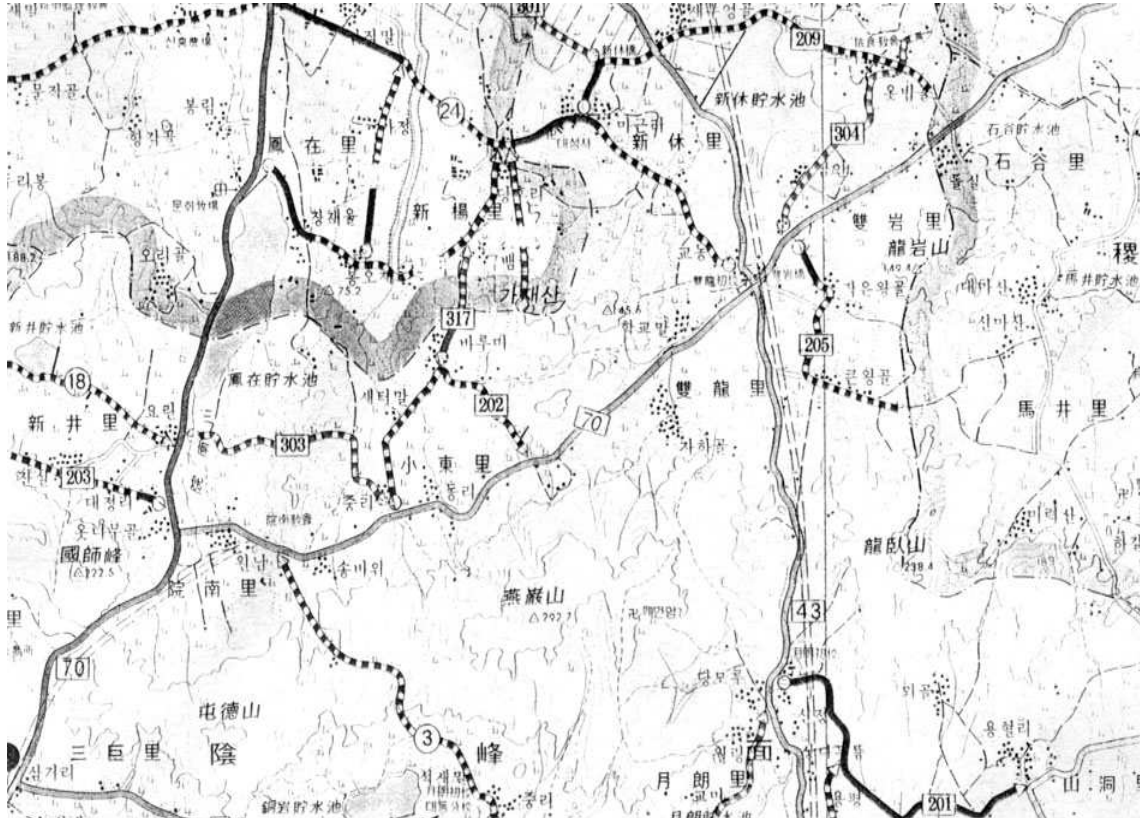


쌍암리·雙岩里

쌍암리는 음봉면의 한 마을로 행정상 세 마을로 나뉜다. 1구를 큰왕골, 2구를 담안, 3구를 작은 왕골이라고도 부른다. 쌍암리의 총인구는 375명이고, 가구수로는 108가구이다. 가구중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쌍암리는 본래 아산군 이동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암리, 하암리, 하룡리 일부를 병합하여 쌍암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마을로 분구된 후 1996년에 다시 한마을이 더 분리되었다.

<쌍암리 위치도>



☒ 큰왕골, 담안, 작은왕골 마을

큰왕골이라 불려진 유래는 세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로 풍수지리에 따라조상들이 이곳에서는 큰왕이 난다하여 그렇게 불리었다는 설과 임금님이 행차하시다가 잠시 쉬어 가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그리고 동네에 큰바위가 있어 바윗골 또는 왕골이라 전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담안 마을은 음봉면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100여년전에 처음 몇가구가 담을 함께하고 살았다고 하여 지금 까지 담안으로 부르기도 하며, 마을에 술밭 담처럼 둘러싸인 곳에 있다 하여 마을의 지명이 유래한다 한다.

작은 왕골은 1996년에 쌍암1리에서 분구되었다.

<조사당시 쌍암리 마을 관련사진>



1) 위 치

음봉 농협에서 북쪽으로 1km정도에 마을이 위치한다.

큰 왕골에서 1km 떨어진 농협을 지나 다시 서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현 황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큰왕골마을이 143명이고 담안 마을이 111명 작은왕골 마을이 121명이다. 생업에서는 담안 마을이 97%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으며 작은왕골마을이 87% 큰왕골마을이 86%이다.

농경지현황에서는 큰왕골마을에 논이 22ha로 2리와 3리보다 많으며 밭도 마찬가지로 큰왕골마을이 19ha로 조금더 많다.

- 인구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큰왕골마을	143명	79명	64명
담안마을	111명	53명	58명
작은왕골마을	121명	58명	63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큰왕골마을	100%	86%	14%
담안마을	100%	97%	3%

작은왕골마을	100%	87%	13%
--------	------	-----	-----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큰왕골마을	41ha	22ha	19ha
담안마을	37.5ha	20.5ha	17ha
작은왕골마을	34.8ha	19.8ha	15ha

- 농기계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큰왕골마을	20	1	1			21
담안마을	28	10		23	3	5
작은왕골마을	18	11		23	2	6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큰왕골마을	1	1	1조	
담안마을	1	1	1조	
작은왕골마을	1	1	1조	1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큰왕골마을	10	18	10	10	25	30	25	10	5
담안마을	10	11	10	6	20	25	20	8	1
작은왕골마을	3	14	20	6	13	18	11	5	2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서씨	정씨	기타
큰왕골마을	15%	14%	14%			57%
담안마을		41%		15%		44%
작은왕골마을	8%	13%			18%	61%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큰왕골마을	5	7	4	2

담안마을	8	5	6	2
작은왕골마을	3	8	3	5

－ 최고령자

큰왕골 마을은 96세의 황토 담장집 할머니이시고 담안 마을의 최고령자는 81세의 이기남 할아버지 이시다.

작은왕골마을은 양정순 할머니로 94세이시다.

－ 마을 호당 평균 소득

큰왕골마을은 년/700만원

담안마을은 년/800만원

작은왕골마을은 년/800만원

3) 자연 경관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서 아주 오랜 옛날에나 볼 수 있었던 황토 담장집을 한채 볼 수 있는데 그 집은 현재 5대째 살고 있다고 한다. 마을 왼편으로는 대부분이 산이고, 반대편에는 들과 가옥들이 자리하고 있다. 가옥들은 분산되어 있으며, 마을 위편으로는 고속철도가 지날 예정이다.

작은 길로 시작되는 이 마을은 큰 길을 중심으로 작은 길들이 이곳저곳으로 뻗어 있다. 대부분이 논이며, 마을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배과수원이 있으며 마을의 길은 오르막길로 되어 있다. 마을이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없고, 길을 따라 들어가야만 비로소 가옥들을 만나게 된다.

4) 마을 변천과정

큰 왕골은 아산군 이동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암리, 하암리, 하룡리 일부를 병합하여 쌍암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마을로 분구가 되었다.

행정구역 폐합 후 1, 2구로 나뉘었는데 1996년에 다시 인구의 증가로 2구를 두 구로 나누어 3구가 형성되었다.

5) 입 향

이 마을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이씨와 김씨인데 마을 입구에 있는 황토 담장집이 그때 처음 터를 잡았던 곳이라 한다.

현재까지는 박씨가 8대째 살고 있으니 마을의 형성은 240여년 전 이상임을 추측 할 수 있다.

이 마을에 가장 먼저 정착한 성씨는 박씨 또는 이씨로 추측되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처음 터를 잡았다고 하며 번지로는 지금의 225번지의 위치라 한다.

6) 지 명

왕 골 : 쌍암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큰 바위가 있음.

담 안 : 작은 왕골 북쪽에 있는 마을.

작은 왕골 : 큰왕골 아래 북쪽에 있는 마을.

현재는 마을이 큰 왕골 보다 큼

큰 왕골 : 왕골 위쪽에 제일 먼저 된 마을.

왕골들 : 왕골 앞에 있는 들

말미고개 : 왕골에서 천안시 직산면 마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웃 박골 고개 : 박은 왕골에서 의식리로 가는 고개

월랑이 고개 : 왕골에서 월랑리로 가는 고개

아갈바위 : 길가에 입을 벌린 모양을 한 큰바위.

용화산 : 용굴이 있다는 산.

곰배산 : 마을 어귀의 둥글고 큰 산으로 담안의 유일한 산이다.

바윗골 : 왕골 (암골, 암리)

7) 전 설

큰 왕골에서 내려오는 전설로는 아갈바위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아갈바위가 이 마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입처럼 생긴 바위가 이 마을의 수락을 먹어 치우고, 마을에 배설하여 이 마을이 부유하지 않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8월 추석이나 칠월칠석 또는 명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한다.

칠월칠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옛날의 공동우물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예전에는 마을 공장 앞에 큰 나무가 있어 그곳에서도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15년전쯤 나무를 베어 없애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 단체

새성암교회 음봉면 쌍암292번지 목사 서종원 종파 : 감리교

11) 공장현황

·선학벽지산업-쌍암 6, 허가일 96.12.13, 면적 1,495, 종업원수 5,
벽지·장판지

·카본로렌코리아-쌍암 200-1, 허가일 87.7.20, 면적 9,767,
종업원수 18, 특수카본 카본브러쉬

12) 마을의 특성

별다른 특성은 없지만 이마을의 자랑거리로는 경로효친 사상이 뛰어나다는 것과 경치 좋은 자연 부락 중에 한 마을이다.